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이채문* · 박규택**

The Return Migration of Koreans in Central Asia to the Russian Far East

Chaimun Lee* · Kyutaeg Park**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에 대한 배출-흡입 모형에 근거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을 미시·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배출과 흡입 지역에서의 미시·거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배출 지역의 거시적 요인으로 국가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을, 미시적 요인으로 교육열과 신분 상승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입 지역에서 작동한 거시적 요인으로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이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의 제정을, 미시적 요인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귀환 이주와 관련한 한인 자치주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 고려인, 귀환 이주, 배출 - 흡입 모형, 언어 정책, 내전과 민족 갈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plain and discuss the return migration of Koreans in Central Asia to the Russian Far East. The Koreans' return migration is explained by the combination of push and pull factors inherent in the host and home countries. The structural or institutional push factors in Central Asia include the linguistic policy of a country, civil war, ethnic conflicts, while the micro ones are the Koreans' high concern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a socio-economic status. The macro pull factors operated in the Russian Far East are the permission to use the housing facilities and land previously controlled by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laws of recovering the Koreans' basic right and honor, while the micro ones are the networks of relatives and friends living in Central As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two aspects related to the Koreans' return migration are also discussed. Firstly, the return migration of Koreans in Central Asia is interpreted as a migration of ethnic affinity.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district of Koreans in the Russian Far East is discussed.

Key words : Koreans in Central Asia, Return migration, Push-pull model, Linguistic policy, Ethnic conflicts.

1. 서론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민족의식 혹은 민족주의는 구시대의 산물로 점차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근대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민족 공동체의 필요성은 감소하는 반면 인류 전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를 신뢰하는 학자들도 민족주의를 인류 발전의 한 단계, 초기 자본주의의 산물로 간주하면서 계급과 민족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는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¹⁾ 양자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 간의 차별이

나 갈등은 점진적으로 쇠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9.11 뉴욕의 테러 사건이나 모스크바의 문화회관(Культурный дом)에서의 인질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던 민족 간 갈등은 쇠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본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세계화의 진전은 민족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민족 간의 갈등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nderson and Shewan, 1993; Arapov and Umanskii, 1994; Gurr, 1994; Hansen, 1999; Ron, 2000; Wood, 1994).

소련 연방 체제의 붕괴에 따라 탄생한 독립 국가들, 특히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 민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ecm@knu.ac.kr)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kyutaeg07@hanmail.net)

족들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고 있다. 60여 년 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후 무수한 시련을 극복하고 정착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다시 그들의 부모가 살았던 고향, 연해주로 귀환 이주하고 있다. 고려인의 극동 지역으로 귀환은 이전의 이주와 연계시킬 때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1860년대부터 한인들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것을 '제1의 이주'로, 1937년 18만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을 '제2의 이주'로 명명한다면, 1989년 소련 체제의 붕괴 전후로 일어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를 '제3의 이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제1의 이주'²⁾와 '제2의 이주'³⁾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제3의 이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극동 지역으로 귀환하는 현상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깊이 있는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제3의 이주'에 대한 기존 문헌들⁴⁾의 한계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문헌이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에 관한 소식을 뉴스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문헌은 한인 문제를 여러 가지 주제 하에서 취급하면서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간략하게 서술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귀환 이주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아 분석한 뒤 문제점과 해결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귀환 이주가 왜 혹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조적 혹은 행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셋째, 일부의 깊이 있는 연구들은 고려인들이 극동 지역으로 귀환 이주하게 된 원인을 배출 요인, 중앙아시아에서의 내전이나 민족주의 강화 등에 초점을 두면서 흡입 요인, 극동 지역에서 고려인을 유인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다. 넷째, 많은 연구들이 귀환 이주와 관련된 비참한 현실을 소개하면서 민족적인 관심을 유발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귀환 현상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3의 이주'에 대한 기존 문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의 결합에 기초한 배출-흡입 모형(push-pull model)⁵⁾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의 성격과 연해주 지역에 자치주 수립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귀환이주의 이론적 배경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환류 이주(reflux migration), 귀향 이주(homeward migration), 재이주(remigration), 역류(return flow), 2차이주(second-time migration), 등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고려인의 이주는 위의 개념들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의 용어를 사용하며, "재정착하기 위해 고국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의 움직임"으로 개념 정의한다.⁶⁾

귀환 이주는 일반적으로 신고전경제학적 관점과 역사·구조적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두 관점은 귀환 이주를 노동력 이동, 특히 국제적 노동력 이동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신고전경제학적 관점(neo-classical economic perspective)에 따르면 국제 노동력 이동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역사·구조적 관점(historical-structural perspective)은 국제 노동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면서 인구 유입국과 유출국의 시장, 사회, 국가, 나아가서 세계 체제 모두를 포괄한다.⁷⁾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고전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국제 노동력 이동은 개인이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행위로 설명된다. 여기에서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가정하여, 기대 이익이 예상될 경우 언제나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노동력 이동은 개인들이 시도하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계산된 행동으로 설명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구조적 관점에서의 국제 노동력 이동은 세계 체제론과 노동시장 분절론에 기초하여 설명되고 있다. 세계 체제론에 따르면 국제 노동력 이동은 저발전 부문(less developed sector)

또는 저개발 국가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 하는 세계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편입 과정은 양 부문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주는 자본 축적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⁸⁾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해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주변 지역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양식을 확산시킴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의 전통적 생산양식은 파괴되고 또한 과잉 노동력이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중심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⁹⁾ 따라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 노동력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귀환하는 극동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중앙아시아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요인, 즉 내전이나 회교 민족주의 또는 국가의 언어 정책이 더 중요한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구조적 관점이 주장하듯이 주변부가 중심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주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

조 혹은 제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자의 입장을 결합시켜 본다면, 귀환 이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에 대한 개인적 혹은 가족적 결정은 거시 구조적 변수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따라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 구조적 요인이 서로 연관된 관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단행되었다. 그 후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1980년대 후반 페스트로이카 시기에 강화된 회교 민족주의와 내전 등에 의하여 볼고그라드를 비롯한 러시아 남부와 극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주는 더 좋은 경제적 지위, 직업에서의 성공, 자녀 교육 등 개인 혹은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욕구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¹¹⁾ 소련 연방 체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 있어 회교 민족주의 대두 그리고 종족과 지역 간에 발생한 갈등 등 거시 구조적 요인들이 고려인들을 외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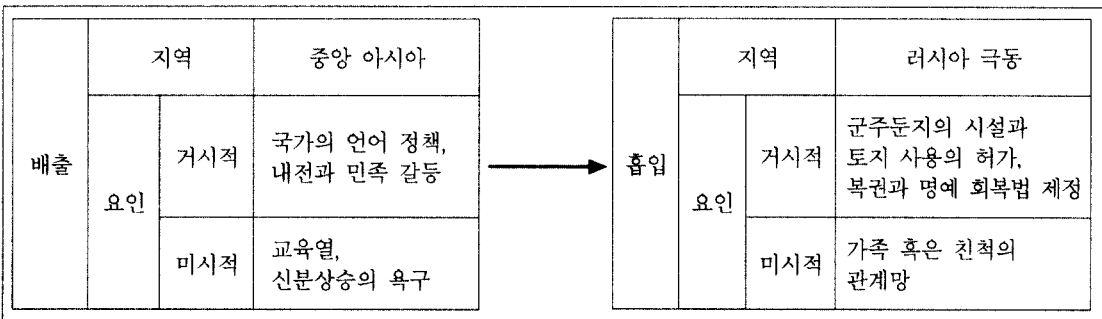


그림 1. 고려인 귀환 이주의 배출 - 흡입 모형

다. 즉 배출지인 중앙아시아 지역과 귀환지인 극동 지역이 세계체계론에서 설명하는 중심부와 주변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주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고전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국제 이주가 단지 개인의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역사·구조적 관점이 주장하듯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구

역할을 하였다.¹²⁾ <그림 1>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 틀로 사용될 배출-흡입 모형이다.

3. 중앙아시아 지역의 거시적·미시적 배출 요인

3-1. 거시적 배출 요인

1) 중앙아시아 국가의 언어 정책

배출 지역에서의 거시적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언어 정책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언어 정책은 직업 문제와 관련되어 고려인들을 극동 지역으로 귀환시키는 배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공식적 언어로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러시아어 대신에 자국의 언어를 채택함으로써 고려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독립된 국가의 공용어, 러시아어 그리고 민족어 등 3중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교사, 의사, 연구원, 집단 농장장 등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¹³⁹ 소수 민족들은 독립된 국가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자영농이나 도시의 자영업 또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각 국가의 공용어를 배우지 않을 경우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로 연해주에 김 유리씨(63)는 1991년 우즈벱의 독립이후, 러시아와 고려인 등이 담당했던 건축 경영업무를 우즈벱 사람들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껴 공직을 사임하고 귀환하였다.¹⁴⁰ 국가의 언어 정책과 같은 거시·구조적 요인은 중앙아시아 소수 민족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포함한 타 지역으로 이주를 강요시킨 배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0년 카자흐어 중심의 단일 언어정책이 시행된 뒤 1993년까지 국가 기관과 각 조합에서 카자흐어를 모두 익히도록 함으로써 러시아 언어에만 익숙해 있던 고려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카자흐어 중심의 언어정책은 고려인들의 자녀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서 고려인들이 심각하게 이주를 고려하였고, 특히 경제력이 있는 40세 전후의 고려인들은 국내의 대도시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¹⁵¹ 타지키스탄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 타지크어를 모르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타지크를 모르는 고려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게 되자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의 여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게 되었다.¹⁶¹ 우즈벱키스탄에서도 우즈벱어를 구

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소수 민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¹⁷¹ 고려인들은 단기간에 러시아어를 대신하여 우즈벱어로 모든 공공업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러시아어가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도, 젊은 층은 러시아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스크바나 연해주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¹⁸¹

2) 내전과 민족 갈등¹⁹¹

중앙아시아 지역과 북코카서스 지역에서의 내전과 민족 분규는 수백만의 이주민을 발생시켰다. 그루지아에서 약 30만 명, 계속된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박에서의 해묵은 분쟁으로 약 160만 명, 타지키스탄의 내전으로 약 90만 명의 난민이 각각 발생하였다. 또한 우즈벱키스탄의 경우 1996년까지 약 50만 명이 타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인들이 17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 고려인, 유대인, 독일인, 바쉬키르인(Bashkirs) 및 타타르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⁰¹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상황을 보면, 소연방의 붕괴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이주는 1991년 타지키스탄의 내전을 계기로 하여 본격화되었다. 타지키스탄 내전의 근원은 소연방의 형성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타지크인과 우즈벱인은 모국인 투르크스탄에서 수세기 동안 같이 생활해 왔으나 소비에트정권은 타지크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무시한 채, 타지크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두산베를 수도로 한 타지크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각 민족의 독립 문제가 제기되었고, 1990년에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 공산당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킴으로서 내전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타지크인들을 한 민족으로 이해하기에는 곤란할 정도로 다민족적 성향과 복잡한 지역주의(mahalagaroi: regionalism) 그리고 종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타지크내전의 근원이 되었다.²¹¹

지역적으로 북부의 레니나바드(Ленинобад област)는 공업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며, 이에 기반을 둔 타지크인들이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북부지역 인구의 30%는 우즈벱어를 구사하고 있고 또한 북부의 도시 거주자들

의 대부분은 우즈베크어와 타지크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부 파미르(Памир)지역의 타지크인들은 산악 지대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타지역의 타지크인들과는 상이한 정체성을 형성시켰다.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타지크인들 간의 인식 차이, 특히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남부 지역 주민들을 경멸하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는 차별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²²⁾ 소련방 붕괴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던 북부와 가난한 동부간의 지역 대립이 시작되었으나, 남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이러한 대립이 북부, 남부 및 동부

된 한인들의 후손으로서 1954년 거주지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는 금지되었던 관계로 북코카서스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는 강제 이주된 여러 소수민족들과 동병상련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거주하다 소련의 붕괴 이후, 일부는 볼고그라드를 포함한 남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내전과 민족 간의 갈등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한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표 1).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대상으로 라린과 플라센이 실시한 조

표 1. 중앙 아시아 고려인들의 이주 동기

| 동기 | 재소환인 거주지역* | | | 전체** |
|-------------------------------|------------|--------|--------|------|
|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우즈베키스탄 | |
| 선조가 살던 곳이 그림다 | 26 | 19 | 14 | 18 |
| 침예화된 갈등이 평온하고 조화된 생활을 방해한다 | 17 | 30 | 32 | 28 |
| 주거지와 환경을 바꾸고 싶다 | 4 | 0 | 4 | 3 |
| 민족간 갈등이 생활을 위협하고 자신과 가족에 위험하다 | 13 | 25 | 37 | 29 |
| 물질적 생활여건의 향상 | 15 | 4 | 7 | 8 |

* 전체 응답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함.
 ** 각 항목에 응답한 사람의 수를 표시함
 자료: 라린과 플라센, 1994, 179.

간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공산당계가 장악하는 풍요로운 북부 지방인 레니나바드(Ленинобад), 공산당과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 남동부의 꿀라브주(Куляб область), 반공산당주의를 표방하는 이슬람계통의 가난한 남서부 꾸르간츠크베주(Курган-Тубе область) 등의 대립으로 발전하였다.²³⁾

타지키스탄의 내전으로 고려인 난민 약 1만여 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크라브주와 크루간츠크베주의 고려인 4,000여명은 거의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 1994년 체첸 전쟁이 발생하자 북코카서스 지역의 체첸과 다게스탄에 거주하던 700여명의 고려인도 귀환 이주를 시작하였다.²⁵⁾ 북코카서스 지역에서는 대략 25,000명 내지 30,000명의 한인들²⁶⁾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1937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

사에서 “무엇 때문에 현재 살던 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민족 간의 갈등이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위협을 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3-2. 미시적 배출 요인

고려인들의 재이주는 높은 교육열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농촌보다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에 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는 고려인들이 사무직 혹은 관리직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표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도·농간 거주지 분포

| 지역 | 도시(%) | 농촌(%) |
|--------------|-------|-------|
| 카자흐스탄(1992) | 84.2% | 15.8% |
| 우즈베키스탄(1990) | 57.8% | 42.2% |

자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재외동포센터(<http://edu03.jungang.co.kr/users/minisha/frame1.htm>)²⁷⁾

고려인들의 높은 교육열이 귀환 이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은 한·러 혼용신문 「원동」(Дальний Восток)의 기사인 반 알렉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은 각 공화국들이 독립한 이후 자국어와 자국민 우선에 기초한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러시아 말과 문화에 익숙한 고려인들은 변화를 모색해야 했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⁸⁾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도 내란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문제가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란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도 두산베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3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수업료로 학생 1인당 \$1.7-5를 내야하므로 고려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 기술대학, 사범대학 및 외국어 대학이 있지만, 내전으로 인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육자들이 떠난 후 교육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인근 러시아 등지로 유학을 보낼 수 있겠지만, 엄청난 학비 부담으로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²⁹⁾ 이러한 자녀 교육 문제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배출 요인이 되고 있다.

4. 러시아 극동 지역의 거시·미시적 흡인요인

4-1. 거시적 흡인 요인

- 1) 농업 생산 활동과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사용의 허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귀환

이주자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농지는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임대료가 매우 싸며, 무공해 농사에 적합한 농지가 널려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유입시키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 지역의 좋은 경제 흡입 요인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없지 않다. 특히 이주 초기에 당면하는 장애요인은 지역의 열악한 자연 환경이다. 예를 들면, 이주한 고려인들은 봄에 국영 농장의 부지를 임대하여 토마토, 양배추, 오이 등을 심으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꿈꾸지만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³⁰⁾

소련 연방의 붕괴와 함께 극동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의 일부가 해산 혹은 철수하였다. 그리고 군부대가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분배됨에 따라 귀환하는 이주자들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더 많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흡입하였다. 구체적으로 1995년 군부대가 철수한 뒤 버려진 소규모 부대의 주둔지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 혹은 거리(городок-посёлок)로 불리어 지는 장소가 100개 이상이 되었다. 군인들은 철수하면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고 남은 것은 빈 막사였지만,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건너온 200여명의 고려인 이주자들(переселенец)에게 소중한 거처였다.³¹⁾ 연해주 주지사는 연해주 주지사령 NO64-p, “연해주에 소재한 해체된 군사도시를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에 이양하여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령”, 에 의거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고려인들에게 주거 시설과 토지를 분배 혹은 임대하였다(표 3).

또한 연해주 지방 13개 고려인 협회는 연해주 한인재생기금(Краевой фонд примор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зрождение)³²⁾을 구성하여 귀환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정착촌 설립을 도왔다.³³⁾ 이 기금에 기초한 귀환 이주자 돕기 운동회는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2000년~2001년) 11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³⁴⁾ 이것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 귀환 고려인에게 분배 혹은 임대된 주거 시설과 토지

| 지역 | 주택 | 세대 | 임대면적/영구면적(ha) | 파종면적(ha) |
|--------------------|-----|-----|---------------|----------|
| 오레호위 | 65 | 18 | 60/23 | 23 |
| 플라토노브카 | 75 | 40 | 475.4/440 | 170 |
| 뽀뽀프카 ¹⁾ | 75 | 50 | 30.6/1500 | 400 |
| 크레모보 | 110 | 60 | 87 | 30 |
| 라즈돌노예 | 58 | 38 | 72/50 | 50 |
| 노보레지노 | 44 | 11 | 30 | 27 |
| 보즈드비젠카 | | | | |
| 합계 | 427 | 217 | 668/2100 | 750 |

자료: 이정식, 2001, 204-5.

2) 국가에 의한 복권과 명예 회복법의 제정과 귀소본능³⁵⁾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에 작용한 중요한 흡입 요인은 1991년 “피억압 민족의 복권에 관한 법안”과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명예 회복법”인데, 이 법이 러시아 최고회의를 통과하면서 극동 지역으로 귀환하는 고려인은 급증하였다.³⁶⁾ 1993년 4월 1일 러시아 연방최고회의에서 “러시아 한인들의 명예회복에 관하여”³⁷⁾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불법적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한인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하여 “탄압 받은 민족들의 명예회복”이 러시아 연방최고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러시아 연방법에 의거하여 “러시아계 한인들은 자율적 의지에 따라 이주되기 전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았다(제2항). 그리고 “강제 이주로 인해 구소련 내 다른 공화국에 거주하게 된 러시아계 한인들은 러시아로 그 거주지를 영구히 옮기게 될 경우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였다(제4항). 이들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와 기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귀환 이주가 용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정치 탄압을 당한 후 그들의 원래 거주지로 돌아온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지역자치 기관들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돌아온 사람들의 청원서에 따라 개인용 주택건설, 농민과 개

인산업을 위한 조직결성, 농촌조합, 주식회사 등을 조직하려 할 때 토지법에 의거해 일정 토지를 분배해 주도록 한다”(제5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귀환 후 유입지역에서 러시아 당국이 귀환한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

4-2. 미시적 흡입 요인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친지나 가족 등의 연고가 있는 곳을 중요한 대상으로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려인들도 이주 대상으로 연고가 있는 지역, 특히 러시아 극동을 택하였다. 극동으로 재이주한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 가족 혹은 친척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따라서 친인척이나 친구가 살고 있거나, 친인척이 먼저 정착하여 경제적 기반을 쌓은 곳이 주로 이주 대상지가 된다. 연해주 지역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40세 전후의 가장(家長)이 먼저 이주해간 후, 경제적 터전을 마련한 후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⁴⁰⁾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 김텔미르(Тельмир Ким) 회장에 의하면 “3월 농사철이 시작되면 중앙아시아 타쉬켄트와 알마티에서 일자리와 향후 생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50명의 건장한 고려인 젊은 이들이 우수리스크로 몰려올 것”이며, “가을추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두고 온 가족의 이주도 빨라질 것”⁴¹⁾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고려인들의 연고에 따른 이주 형태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연해주 정착촌의 입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보다 선입주자의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고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는 귀환 이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⁴²⁾ 정착촌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사적 재산을 행할 수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귀환한 고려인들이 정착 기반을 닦아 개인 소유의 주거지로 이전할 때까지 일시적 거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은 국내·국제적 인구 이동 혹은 귀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석현호, 2000; Byron and Condon, 1996; Davis et al, 2002). 이주자, 전 이주자, 배출 지역과 흡입 지역의 비이주자는 친족, 친구, 동향 사람 등에 의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며, 이것은 이주의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이익과 안전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역 혹은 국가 간에 이주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준다(석현호, 2000).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이주자들은 귀환 시기에 따라 생활의 차이를 보이는데, 1990년 초까지 연해주로 이주해 온 타지키스탄 출신의 고려인들은 여유 있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주지에서도 타지키스탄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지키스탄의 내전 당시 귀환한 고려인들과 최근 이주자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이 애리아, 199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 즉 '제3의 이주'는 100년 전 한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노령으로 진출한 '제1의 이주'와 유사한 점이 많다. 제1세대 한인 이주자들이 개척지에서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굳건히 정착한 과정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 의한 '제3의 이주'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세대 이주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후 극동 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 대한 페소츠키(В. Д. Песоцкий)가 언급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인들은 농부로서 어떤 황량한 곳에서든지 정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의존하지 하거나 갈망하지 않고도 생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인들의 특성은 (러시아) 정부에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한인들을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길이나 있지 않은 외진 지역에 정착시키고도 그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인 농부들의 유용한 측면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러시아 농민들에게 적당하지 않은 (힘든)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⁴³⁾

극동 지역에서의 또 다른 흡입 요인은 고려인들의 귀소본능(歸巢本能)을 들 수 있다. 조금이라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고려인들은 모두 이주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37년 강제이주 당하기 이전의 고향에서 민족적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⁴⁴⁾ 과거 두산배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 귀환한 뒤 현재 남편이 지은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팔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고슬라반씨(40세)는 “부모가 강제 이주되기 전 거주하였던 파르티잔스크에서 살게 되어 언해주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다.⁴⁵⁾

5. 고려인의 귀환 이주 성격과 자치주 수립에 대한 논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民族親和的) 성격을 띠고 있다. 고려인들을 포함한 여러 소수 민족들의 이주는 소련연방 체제의 붕괴 이후 국외에 거주하는 동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귀환 이주 현상을 구소련 민족관계의 권위자인 브루베이커(Brubaker)는 '민족 친화적 이주'(migration of ethnic affinity)라고 불렀고, 소수 민족들의 민족 친화적 이주 욕구는 독립국가연합에서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예측하였다.⁴⁶⁾ 민족 친화적 이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과거의 모국인 한국 정부로 하여금 동포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먼저 고려인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재소 유대인과 독일인의 경우 고국인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시민권 또는 이주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상당수가 고국으로 귀환 이주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권 혹은 이주권⁴⁷⁾을 부여받지 못한 소수 민족들의 모국 즉 한국,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 헝가리 및 불가리아 등으로 하여금 재소 동족에게 시민권 혹은 이주권을 부여하도록 자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중 국적의 허용까지 논의되었던 「재외동포 특례법」은 출입국의 자유와 경제 활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직계후손”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중국과 구소련의 한인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징용된 재일 동포와 그 후손들이 재외동포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02년 11월 말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 특례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차별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와 관련하여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 자치주 수립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⁴⁸⁾ 또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관련된 문헌에서도 일방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고려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민족 정체성만 일방적으로 강조 혹은 강요하는 것이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현지의 사회·문화에 동화하면서 우리의 문화 일부 상실하기도 하고, 일부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인들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공통성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민족 정체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들이 겪어온 과정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고려인들의 후손은 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조국과 사회, 즉 남·북한이 아닌 태어나 자란 지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이 이들의 가치 혹은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카자흐스탄은 바로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 땅이다. 바로 카자흐스탄이 나를 교육시켰고 흥미 있는 직업을 주었으며 훌륭한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바로 카자흐스탄이 제공해 주었다.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바라고 돌이켜 볼 필요가 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살며 근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우리 공동 집이며 이 공동 집을 우리 손으로 잘 가꾸며 꾸러나가야 한다.”⁴⁹⁾

일부 고려인들은 극동 지역에 고려인 자치주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의 경험은 고려인 자치주 수립에 대한 태도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⁵⁰⁾

실제로 러시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고려인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4월 23일 연해주의 신문 <붉은 깃발>(Красное знамя)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귀환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햇산의 토지를 약탈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서 귀환 고려인을 “약탈자”(захватчики)로 단정한 사실이 러시아 주민들의 반발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¹⁾ 특히 현지 러시아인들은 귀환한 고려인을 경제적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텔미르 김(Тельмир Ки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농사지을) 토지는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나 콜호츠의 (러시아인) 지도자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우리와의)경쟁이 달갑지 않는 것이다. (우리를) 적대시하려고 한다. 보즈드비첸크에서 러시아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위협하기도 하였다: 고려인들은 철저한 도적들이고 마약중독자들이며 깡패들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재이주 고려인)들은 나설 수도 없고 다만 똑같이 빈민들처럼 살 뿐이다.”⁵²⁾

소수민족 자치주에 대한 러시아 주민의 반발은 고려인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재소 독일인들의 경우 칼리닌그라드(Калининград)에 자치주 수립이 소련 연방의 고르바췌프 서기장과 엘친 대통령에 의해 허락되었지만 현지의 러시아 당국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칼리닌그라드의 러시아 주민들은 재소 독일인 자치주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위태로워지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독일인과의 경제적 경쟁을 제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따라서 연해주에 한인 자치주 건설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 정부가 제시한 ‘민족문화자치제’(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⁵⁴⁾에 대해 주목할 만 하다. 이 제도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에게 영토적·행정적 자치제 대신에 민족 문화

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독창적인 문화, 언어 및 전통을 유지함과 동시에 민족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지역 단위의 한민족 문화자치체가 1996년 12월 스타브로폴(Ставрополь)에서 등록되었고, 뒤이어 1997년 여름 모스크바에서, 1997년 12월 이르쿠츠크에서, 1998년 초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등록되었다.⁵⁵⁾

6. 결론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를 고찰함에 있어서 신고전경제학적 관점과 역사·구조적 관점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미시·거시적 요인들의 결합에 기초한 배출 - 흡입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행위 주체의 경제적 합리성과 거대 구조로만 설명될 수 없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배출 - 흡입 모형을 제시했으며, 배출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 등의 거시적 측면과 고려인의 교육열 그리고 신분상승의 요구 등의 미시적 측면이 논의되었다. 또한 흡입 요인으로 러시아 정부에 의해 극동 지역 군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사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 제정의 거시적 측면과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망의 미시적 측면 논의되었다. 배출-흡입 요인의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소련 연방 체제의 해체에 따라 독립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시행한 언어 정책은 고려인들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귀환시키는 거시적 배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한 후 러시아어 대신에 자국어를 공식적 언어로 채택함으로써 고려인들은 독립된 국가의 공용어, 러시아어 그리고 민족어 등 3중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언어 정책은 고려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소수 민족들의 러시아 타 지역으로 이주를 강요시킨 거시적 배출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을 배출시킨 다른 거시적 요인은 민족 갈등과 내전이다. 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 각 민족의 독립 문제가 제기된 이후 내전이 시작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

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초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 공산당 정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서 시작된 내전으로 약 1만여 명의 고려인이 난민이 되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귀환 이주하는 요인으로 거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려인들의 높은 교육열이 포함될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내전으로 인해 수도 두산베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3개에 불과하며 수업료를 지불해야 함으로 자녀 교육이 고려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문제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귀환 이주를 가속시킨 하나의 미시적 배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앙 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흡입하는 거시적 요인으로는 러시아 정부에 의한 군주둔지 시설과 토지 사용의 허가 그리고 피억압 소수 민족의 복권과 명예 회복법의 제정을 들 수 있으며, 미시적 요인으로는 가족 혹은 친지의 연고와 귀소본능을 들 수 있다. 소련 연방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일부가 해산 혹은 철수한 뒤 이들의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가 고려인들에게 분배됨에 따라 귀환 이주자들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더 많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흡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 극동 지역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흡입하는 중요한 거시적 요인은 1991년 러시아 정부가 제정한 “피억압 민족의 복권에 관한 법안”과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명예 회복법”인데, 이 법이 러시아 최고회의를 통과하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귀환하는 고려인이 급증하게 되었다. 미시적 요인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친지 혹은 가족과의 관계망과 귀소본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친지나 가족 등의 연고가 있는 곳을 중요한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자신들과 연고 관계가 있는 극동 지역을 택하였다. 극동 지역으로 귀환 이주한 고려인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가족 혹은 친척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미시적 흡입 요인은 귀소 본능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37년 강제 이주 당하기 이전의 고향에서 민족적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합의를 여러 관점들 가운데 두 가지를 요약한다. 민족 친화적인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이들의 모국인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한민족 혹은 동포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 새로운 딜레마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이중 국적의 허용까지 논의되었던 「재외동포 특별법」은 출입국의 자유와 경제 활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직계후손”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고려인들과 후손들은 재외동포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고려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민족 정체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혹은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고려인들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통성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들이 겪어온 과정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의 과정 그리고 정착된 삶의 모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한민족 정체성 그리고 법적 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註

1) Jeff Chinn and Robert Kaiser, *Russians as the New Minority: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pp. 23-25.
 2) '제1의 이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V. 그라베,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уск XI.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амурь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Ф. Киршбаум, 1912). (「極東露領に於ける黃色人種問題」, 『露・亞經濟調査叢書』 第49卷, pp.1-214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四年,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上卷) 蘇聯篇(極東地方) pp.740-976(語文閣, 1967); Герман Ким,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1945 г.) (Алматы: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 оведения имени р. б. Сулейменова, 1999);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탐구당, 1996); 고승제,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分析」, <<白山學報>>第11號(1971), pp.149-168; 고승제, 「연해주 이민사 연구(1853~1945)」 『國史館論叢』 제11집(1990), pp.1-32; 권희영,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國史館論叢>> (國史編纂委員會) 第41輯(1993), pp.153-186; 류한배, 『한민족 러시아이민사 연구서설: 한민족공동체 구상과 관련하여』(세종연구소, 1999); 심현용,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이민 초기의 쟁점과 현대적 의미」, 서대숙(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pp.53-82; 이동연, 「露領地域 初期 韓人社會에 관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991), pp.205-232;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歷史와 理論」, <<슬라브학보>>, 제 15권 제1호(2000b), pp.349-384;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 韓人農業移民에 관한 社會史的分析: 農民層分化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2000a), pp.59-90;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極東地域移住와 滿洲移住의 比較: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연구』 제7집(2000c), pp.81-122; 이채문, 「러시아/소련 극동지역 한인이주문제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고찰(1860-1937)」, 『슬라브학보』(2002), pp.323-353.

3) '제2의 이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 (Москва: МККА, 1997); С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редакторы),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Алматы-Сеул: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еведов Казахстан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Н-А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1998); Кан Г.В., Ан В.И., Ким Г.Н., Мен Д.В.,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997); 부가이(Н. Ф. Бугай),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해설 및 관계 공문서』(세종연구소, 1996); Nikolai Bugai, "The 'Korean Issue' in the Soviet Far East and the Deportation of 1937." *Far Eastern Affairs*, no. 3(1992) pp.96-103; Michael Gelb, "An Early Soviet Ethnic Deportation: The Far-Eastern Koreans" *The Russian Review* 54(1995), pp.389-412; 岡奈津子, 「ロシア極東の朝鮮人: ソビエト民族政策と強制移住」 『スラブ研究』(第45号)(1998)(http://src-home.slav.hokudai.ac.jp/publicctr/45/oka/oka.html); 木村英亮, 「ソ連極東地方一九三七年: 朝鮮人強制移住と日本」 『歴史評論』(抜萃本) 第11卷(1987), pp.18-29; 김 피오토르 게르노비치·방상현, 『재소 한인 이민사: 스탈린의 강제 이주』(탐구당, 1993); 권희영, 「한민족의 중앙아시아 이주의 배경과 과정」 『중앙아시아 거주 한민족 관련 연구를 위한 Workshop(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주최)(1998)(http://web.korea.ac.kr/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yoonin/koreans/재외동포법/중앙아시아워크숍.htm)
; 정동주, 『까레이스키, 또 하나의 민족사』(우리문화사, 1995); Chaimun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ced Deportations of Two Ethnic Groups: Soviet Koreans and Volga Germans," Proceedings of the 1st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2a), pp.706-720; Chaimun Lee, "A Study about the Origins of The Forced Deportation of Soviet Koreans: Focusing on Ethnic Conflicts over Land Issu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2002b), pp.17-44.

- 4) '제3의 이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종훈, "중앙아시아 한인의 연해주 재이주 현황과 정책과제," 『한민족공동체』 제3호(1995), pp.75-105; 배규성,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역 고려인의 역이주와 생활실태," 『동포논총』제5집(2001), pp.73-93; 이광규,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사회의 체문제," 『재외한인연구』제5호(1995), pp.5-95; 김 텔미르,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의 현황," 『극동문제』 9월호(1999), pp.66-69; 이정식, "연해주 농업개발과 고려인," 『한민족공동체』 제9호(2001), pp.182-213; V.L. 라린, E.A. 플라센, "재소한인의 연해주이주에 대한 연구: 여론조사 결과분석," 『러시아연구』제1권, 2호(1994), pp.166-182.

그리고 고려인의 재이주에 관한 언론보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Jeffrey Lilley, "Russia: Pacific reunion - Ethnic Koreans seek return of Siberian 'homelan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1, 1993); "Coming Home," *Vladivostok News*, Issue 149 (1999) [http://vn.vladnews.ru/1997/iss149/focus.htm]; Владимир Демченко, Константин Завражин, "В Приморье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 военные городки: Больше в родных местах им жить негде" *Известия* 3 февраля, 1999, стр. 2.

- 5) 모형은 인구의 국내·국제 이동을 배출 지역과 흡입 지역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Lee(1966)가 제시한 모형에는 배출과 흡입 요인 뿐만 아니라 기원지와 목적지 사이에 개재되는 장애물도 고려되고 있다(이희연, 1998:399-402; 조혜중, 1993:176-177).
- 6) 여기서 사용되는 정의는 그멜치(George Gmelch)가 사용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George Gmelch,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9(1980), p.136
- 7)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서울대 출판부, 2000), p.7.
- 8) Demetrios G. Papademetriou, p.22-3
- 9) 설동훈, p.16
- 10) Demetrios G. Papademetriou, p.23
- 11) "Выживание в тепличных условиях: Корейцы из Узбек истана обживают Ленин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Святослав Тимченко),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4 Июля, 2001[http://www.ng.ru/printed/rcgions/2001-07-24/4_survival.html].

- 12) 구소련 인구가동의 전체적인 배경으로서 구소련의 해체를 전후로 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발트연안 국가들간의 전체적 인구가동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80년~2001년).

| 연도 | 이주지수 (단위: 10,000명) | | | 유입인구 100명당 유출자 |
|------|--------------------|---------------|------|----------------|
| | (러시아로의) 유입인구 | (러시아로부터) 유출인구 | 순이동자 | |
| 1980 | 63 | 56 | 7 | 89 |
| 1989 | 58 | 47 | 11 | 81 |
| 1998 | 34 | 9 | 25 | 26 |
| 1999 | 25 | 9 | 16 | 35 |
| 2000 | 24 | 6 | 18 | 24 |
| 2001 | 13 | 4.5 | 8 | 34 |

자료: Ж.А. Зайончковская, "Миграции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ами СНГ и Балтии: итоги последн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http://www.budgetrf.ru/Publications/Magazines/VestnikSF/2003/vestniksf203-10/vestniksf203-10310.htm, 2002-11-21].

- 13) "중앙 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로의 재이주" [http://www.koreiski.com/menu.htm, 검색일 2002.11.18].
- 14) 조선일보, 2000.3.1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3/200003120246.html].
- 15) 백태현, "카자흐스탄 '고려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그 정체성 문제: 우쉬토타 지역(카라탈 라이온)을 중심으로," 『韓民族共同體』제9호(2001), pp.111-12.
- 16) 이 애리아, "타지키스탄의 민족분쟁과 고려인," 『연구총서』(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1999), p.218.
- 17) 윤인진·장원창·이광규·이종훈·심현용, "독립국가연합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고려인의 당면과제," 『亞細亞研究』, 제44권, 2호(2001), p.167.
- 18) *Ibid.*, p.160
- 19) 다음에서 사회적 배출요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로 배출을 억제하는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로의 귀환이주를 원하고 있으나 현지에서의 재산처분이 어려운 점은 이 재이주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의 여러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으로는(de jure) 이주를 허락하지만, 사실상(de facto) 이주를 억제하는 것이다(Azrael et al., 1992, p.326). 특히 중앙아시아 현지정부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귀환한 경우는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에는 연해주일대의 집값의 최근 집값이 3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에서 이주한 정올라는 타지키스탄에서 남편을 잃고 어린 3자녀와 함께 장에서 음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집세의 인상으로 이미 4차레나 이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종훈(1995), p.82.
- 20) Authur C. Helton, "Forced Migration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MIGRATIONWORLD*, vol. 24, no. 5(1996), p.34.
- 21) Shahram Akbarzadeh,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48, issue

7(Nov., 1996), p.1116.

22) *Ibid.*, p.1116

23) 이애리아, pp.211-12

24) *Ibid.*, p.219

25) 조선일보, 2000.3.26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3/200003260354.html].

26)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노동자(приезжающие на сезон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работы)까지 합치면 그 수효는 35,000명까지 될 때도 있었지만 이들 계절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러시아 시민권이 없었다. 김연웅, "Корейцы России: судьбы и перспективы," 『건국 50주년 기념 경북대학교 한국고민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1998), p.18.

27) 이준규,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민족연구』(2001), p.146 재인용

28) "시베리아 1만km 횡단취재: 카레이스키의 대이동" 『디지털조선일보』, 2000.3.26.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3/200003260354.html, 검색일 2001.2.9.]

29) 이애리아, pp.221-222

30) 타지키스탄에서 극동 지역으로 귀환 이주한 고려인 췌가이 가족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아들인 로베르트 췌가이(Роберт Шегай)는 농업 생산 활동에 있어 자연환경의 장애적 요인에 대해 잘 말하고 있다. "나는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쓰라리아에서는 (우리가 살던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기후가 너무 다르다. 소문대로 늦게 파종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모든 토마토가 말라 버렸다. 그 다음 수확 시기에 폭우가 쏟아져 모든 농작물이 전부 썩어서 못쓰게 되었다. 그래서 전혀 수확할 것이 없었다."(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всю жизнь занимался, но в тех краях, где мы жили, климат совсем другой. Здесь мы посадили, как оказалось, поздно. Но это еще ничего. Сначала дождей не было, засуха, помидоры все сгорели, потом, когда только убирать собралась, дожди хлынули, все погнило. Так ничего и не собрали...) *Известия*, 3 февраля, 1999, стр. 2, "В Приморье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 военные городки: Больше в родных местах им жить негде."

31) *Ibid.*, стр. 2.

32) 대표자인 텔미르 김(Тельмир Ким)은 20세기 초기 러시아 극동 지역의 대표적인 고려인 민족지도자이자 항일 운동가였던 아파나시 김(Афанасий Ким)의 아들이다. 아파나시 김은 당시 주민 95%가 한인이었던 연해주 포시예트 지역의 서기였으며, 연해주 지역이 백군과 일본군에 점령당한 후 1920년 볼셰비키당에 입당하여 1921년 이르쿠츠크파가 소집한 고려공산당 대회에서 주석단 단원으로 선출되었다. 1934년 1월 11차 원동 변경당 대표자회의에서 고려인으로는 김 미하일과 함께 결의권을 가진 소련 공산당 제17차 당대회 대표로 선발되어 다음의 명연설(名演說)을 하였고, 1936년 일본의 앞잡이라는 죄목으로 사

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제 복잡한 정치관계의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국경부근에 있는 포시예트 지역의 한 콜호즈에서 당과 정부의 강령을 토론하면서, 콜호즈 상공에서 울려 퍼지는 일본군 비행기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인 콜호즈 농부들은 소련의 힘이 우리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산당이 우리 자신의 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 한인 콜호즈 농부들과 근로자들의 임무는 소련 극동지역의 붉은 국경을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사수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XVII съезд Всесоюзн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б).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Москва, 1934). стр. 587, Haruki Wada,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Dae-Sook Suh(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Honolulu: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7, 45).

33) *Известия*, 3 февраля, 1999, стр. 2.

34) 『영남일보』, 2002년 2. 21.

35) 극동 지역의 일부 러시아인들은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고려인들이 버려진 방대한 콜호즈 농장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련시대 이미 잊혀진 쌀 농사를 지을 논밭(рисовое поле)을 다시 부활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콜호즈의 러시아 지도자들은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 부문에서 이들이 고려인 재이주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Известия*, 3 февраля, 1999, стр. 2.

36) "카레이스키: 90년대 초부터 중앙아시아서 연해주로 이주," 『디지털조선일보』, 2000.3.3.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3/200003030346.html].

3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вестия*, 1 апреля, 1993

38)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금의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해주의 민족담당부서의 책임자인 지나이다 자이카(Zinaida Zayika)는 우리 러시아인들이 부유하게 될 때 아마 러시아 정부는 그 결의안에 따라 그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때까지는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Coming Home," *Vladivostok News*, Sept. 4, 1997, Issue #149[http://vlad.tribnet.com/1997/iss149/focus.htm].

39) 이종훈(1995), p.82

40) 백태현, p.112

41) "카레이스키 대이동(1)" 『디지털조선일보』, 2000.3.3.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3/200003030345.htm, 검색일 2001.2.9.]

42) 윤인진 외, pp.150-51.

43) "Кореец, как земледelec, может устроиться в любой глуши и жить, не завися от остального мира, и не чувствуя влечения к нему. Такая черта хороша для государства (говоря о нас) тем, что корейца можно посадить в самые отдаленные, бездорожные уголки т

ерритории и не заботиться о нем, и, при знании дел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тороны корейца-земледела и сделать то, на чтоне годен русский крестьянин.” В. Д. Песоцкий,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морье* (Хабаровск, 1913), с. 61-62. 김 Ён 언, “Корейцы России: судьбы и перспективы,” 『건국 50주년 기념 경북대학교 한국교민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1998), pp.15-6 재인용.

- 44) 조선일보, 2000.3.3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3/200003030346.html].
- 45) 동아일보, 1997.12.3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
- 46) W. Rogers Brubaker, “Citizenship Struggles in Soviet Successor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6, issue 2(1992), pp.269-70.
- 47) 이러한 권리를 무역에 있어서 “최혜국”(most favored 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최혜국적”(most favored nationality)이라는 용어로 표기되고 있다. 재소 유대인이나 재소 독일인은 이스라엘과 독일로 이주하거나 이들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최혜국적”이란 의미는 이스라엘이나 독일 국적과 같이 과거의 모국에서 시민권이나 이주를 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의미한다(W. Rogers Brubaker, “Migrations of ethnic unmixing in the ‘New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2, issue 4(1998)[http://proquest.umi.com/pqdweb]). 이미 1987-1991년 사이 308,000명이 넘는 재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떠났고, 150만명의 또 다른 재소 유대인들이 독립국가연합을 떠날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0~1991년 사이 20만명의 재소 독일인들이 독일로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ilia Shevtsova, “Post-Soviet Emigration Today and Tomorrow,”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6, issue 2(1992), p.247).
- 부분적으로 자국동포를 입국이나 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들로서 상당수의 재소 자국동포의 입국을 허용한 그리스와 있고, 폴란드, 핀란드 및 헝가리 등은 일부의 재소 자국동포들에게만 입국과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국가도 모든 자국동포들에게 자동적으로 모국에 대한 입국과 국적을 허용하는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불가리아는 이 후자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들로서, 브루베이커(W. Rogers Brubaker)의 다음과 같은 뼈아픈 지적은 한국의 동포정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I have not seen reports of Koreans(most of whom, deported to remote parts of Central Asia, no longer speak Korean) migrating to Korea, or of Soviet Bulgarians migrating to Bulgaria.” W. Rogers Brubaker(1992), fn. 3, p.270.
- 48)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광규, “연해주에 한인 자치주를 세워야 한다,” 『월간조선』10월호(1993), pp.606-609. 또한 연해주의 고려인 재생기금회 회장인 김 텔미르

는 연해주의 지역신문인 『러시아의 아침』(Утро Росси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한인 이주자의 수를 50만 명이라고 밝히고, 연해주의 핫산, 우수리스크, 악차브리, 파그라티친, 울긴 및 체르네이 등과 같이 “팅비고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한인의 행정적·영토적 자치체를 수립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 *Утро России*, 27 июня, 29 июня, 1991. V. L. 라린, E. A. 플라센, p.168 재인용.

- 49) 채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이 1996년 2월 24일자 『고려일보』에 실은 글. 백태현, p.128 재인용.
- 50) Мен Дмитрий Вольбонвич, “Численность, расселение и 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二重言語學會誌』, vol. 8(1991), p.342.
- 51)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 회장인 에프게니 강(Евгений Ганг)의 연설문 “연해주 고려인들의 현재와 미래”(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приморских корейцев)에서 인용: “23 апреля 1992 года в приморской краевой газете «Красное знамя» публикуется материал под к расноречивым названием <Захватили землю на Хасане>. Речь шла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в Приморье, именно они изображались <захватчиками>.” [http://www.wekorean.or.kr, 검색일 2002년 12월 3일]
- 52) “Земли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и хватит на всех. Но председатели колхозов нас боятся. Им невыгодна конкуренция. Вот и пытаютс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В Воздвиженке, таком же примерно городке-поселк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брал людей, запугал: мол, корейцы - сплошь бандиты, наркоманы и насильники. Теперь мы туд а даже не суемся. А сами живут - голытьба одна.” *Известия*, 3 февраля, 1999, стр. 2.
- 53) Lilia Shevtsova, pp.247-48.
- 5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 55) 김 Ён 언, стр. 24.

文獻

- 고승제, 1971,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分析, 白山學報, 11, 149-168.
- _____, 1990, 연해주 이민사 연구(1853~1945), 國史館論叢, 11, 1-32.
- 권희영, 1993,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國史館論叢, 41, 153-186.
- _____, 1998, 한민족의 중양아시아 이주의 배경과 과정, ‘중양아시아 거주 한민족 관련연구를 위한 Workshop’ (중양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주최)(http://web.korea.ac.kr/~yoonin/koreans/재외동포법/중양아시아위크숍.htm).

- 김 텔미르, 1999,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의 현황, 극동문제, 9월호, 66-69.
- 김 피오토르 게르노비치 · 방상현, 1993, 재소 한인 이민사: 스탈린의 강제이주, 탐구당.
- 라린, V.L. 플라센, E.A., 1994, 재소한인의 연해주 이주에 대한 연구: 여론조사 결과 분석, 러시아 연구, 1(2), 166-182.
- 류한배, 1999, 한민족 러시아이민사 연구서설: 한민족공동체 구상과 관련하여, 세종연구소.
- 배규성, 2001,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역 고려인의 역이주와 생활실태, 동포논총, 5, 73-93.
- 백태현, 2001, 카자흐스탄 '고려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그 정체성 문제: 우쉬토베 지역(까라탈 라이온)을 중심으로, 韓民族共同體, 9, 94-130.
- 부가이(Н. Ф. Бугай), 1996,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 출판부.
- 심현용, 2001,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이민 초기의 쟁점과 현대적 의미, 서대숙(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53-82.
- 윤인진 · 장원창 · 이광규 · 이종훈 · 심현용, 2001, 독립국가연합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고려인의 당면과제, 亞細亞研究, 44(2), 145-252.
- 이 애리아, 1999, 타지키스탄의 민족분쟁과 고려인, 연구총서,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광규, 1993, 연해주에 한인 자치주를 세워야 한다, 월간조선, 10월호, 606-609.
- _____, 1995,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사회의 제문제, 재외한인연구, 5, 5-95.
- 이동언, 1991, 露領地域 初期 韓人社會에 관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205-232.
- 이상근, 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 이정식, 2001, 연해주 농업개발과 고려인, 한민족공동체, 9, 182-213.
- 이종훈, 1995, 중앙아시아 한인의 연해주 재이주현황과 정책과제, 한민족공동체, 3, 75-105.
- 이준규, 2001,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민족연구, 7, 139-152.
- 이채문, 2000a, 러시아 극동지역 韓人農業移民에 관한 社會史的 分析: 農民層分화를 중심으로, 한국 동북아논총, 17, 59-90.
- _____, 2000b,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歷史와 理論, 슬라브학보, 15(1), 349-384.
- _____, 2000c, 한인의 러시아 極東地域移住와 滿洲移住의 比較: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연구, 7, 81-122.
- _____, 2002, 러시아/소련 극동지역 한인이주문제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고찰(1860-1937), 슬라브학보, 17(1), 323-353.
- 이희연, 1998, 인구지리학, 법문사.
- 정동주, 1995,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학사.
- 조혜종, 1993, 인구지리학개론, 명보문화사.
- Akbarzadeh, S., 1996,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48, 1105-1129.
- Anderson, E.W. and Shewan, D., 1993, An Atlas of World Political Flashpoints, London: Pinter Reference.
- Arapov, A. and Umanskii, I., 1994, Asianism: the external and internal manifestation of ethnopolitics in Central Asia, *Russian Politics and Law*, 32(3), 29-44.
- Azarael, J.R., et al., 1992, Prospective migration and emigration from the former USSR: a conference report, *Slavic Review*, 51(2), 322-331.
- Brubaker, W. Rogers, 1992, Citizenship Struggles in Soviet Successor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2), 269-291.
- _____, 1998, Migrations of ethnic unmixing in the 'New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4) [http://proquest.umi.com/pqdweb].
- Bugai, Nilolai, 1992, The 'Korean Issue' in the Soviet Far East and the Deportation of 1937, *Far Eastern Affairs*, 3, 96-103.
- Byron, M. and Condon, S., 1996, A comparative study of Caribbean return migration from Britain and France: towards a context-dependent explanation, *Trans. Inst. Br. Geogr.* 21, 91-104.
- Chinn, Jeff and Robert Kaiser. 1996. *Russians as the New Minority: Ethnicity and Nationalism*

-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Boulder, CO: Westview Press.
- Davis, B. et al., 2002,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rural Mexico: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networks structure and composition, *Population Studies*, 56(3), 291-309.
- Gelb, M., 1995, An early Soviet ethnic deportation: the Far-Eastern Koreans, *The Russian Review*, 54, 389-412.
- Gmelch, G.,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35-159.
- Gurr, T.R., 1994, Peoples against states: ethno-political conflict and the changing world 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8, 347-377.
- Hansen, R., 1999, Migration, citizenship and race in Europe: between incorporation and exclus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 415-444.
- Helton, Authur C. 1996, Forced Migration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MIGRATIONWORLD*, 24(5), 33-35.
- Lee, Chaimun. 2002a,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ced Deportations of Two Ethnic Groups: Soviet Koreans and Volga Germans, Proceedings of the 1st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706-720.
- _____, 2002b, A Study about the Origins of The Forced Deportation of Soviet Koreans: Focusing on Ethnic Conflicts over Land Issues,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7-44.
- Lee, E.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 47-59.
- Lilley, Jeffrey. 1993, Russia: Pacific reunion - Ethnic Koreans seek return of Siberian 'homelan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1, 1993).
- Papademetriou, Demetrios G., 1985, Emigration and Return in the Mediterranean Littoral, *Comparative Politics*, 18(1), 21-39.
- Ron, J., 2000, Boundaries and violence: repertoires of state action along the Bosnia/ Yugoslavia divide, *Theory and Society*, 29(5), 609-649.
- Shevtsova, Lilia, 1992, Post-Soviet Emigration Today and Tomorrow,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2), 241-257.
- Wada, Haruki, 1987,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Dae-Sook Suh(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Honolulu, HI: Center for Korean Studies, 24-59.
- Wood, W.B., 1994, Forced migration: Local conflicts and international dilemma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 (4), 607-634.
- Vladivostok News*, Issue 149, 1997, Coming Home [<http://vn.vladnews.ru/1997/iss149/focus.htm>].
- Ганг, Евгений., 2002,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приморских корейцев [<http://www.wekorean.or.kr>, 검색일 2002년 12월 3일].
- Граве, В., 1912,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уск XI.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в Приамурь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Ф. Киршбаум) (「極東露領に於ける黄色人種問題」, 『露・亞經濟調査叢書』, 第49巻, pp.1-214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四年,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А., 2003, Миграции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ами СНГ и Балтии: итоги последн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http://www.budgetrf.ru/Publications/Magazines/VestnikSF/2003/vestniksf203-10/vestniksf203-10310.htm>, 2002-11-21].
- Кан Г.В., Ан В.И., Ким Г.Н., Мен Д.В., 1997,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Ким, Герман, 1999.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Книга перва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1945 г.), Алматы,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мени р. б. Сулейменова.
- Ким Ён Ун, 1998, Корейцы России: судьбы и перспективы, 건국 50주년 기념 경북대학교 한국교민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경북대학교 재

외동포연구소.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1997,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 Москва: МККА.

Мен Дмитрий Вольбонвич, 1991, Численность, расселение и 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二重言語學會誌*, 8, 336-355.

С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редакторы), 1998,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Алматы-Сеул,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евдов Казахстан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Н-А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звестия, 1999, 3 февраля, В Приморье корейцы забирают военные городки: Больше в родных местах

им жить негде(Демченко, Владимир и Константин Завражин), стр. 2.

Известия, 1993, 1 апреля,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1, 24 Июля, "Выживание в тепличных условиях: Корейцы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обживают Ленинградскую область"(Святослав Тимченко)[http://www.ng.ru/printed/regions/2001-07-24/4_survival.html].

岡奈津子, 1998, ロシア極東の朝鮮人:ソビエト民族政策と強制移住, *スラブ研究*, 45(<http://src-home.slav.hokudai.ac.jp/publicn/45/oka/oka.html>).

木村英亮, 1987, ソ連極東地方一九三七年: 朝鮮人強制移住と日本, *歴史評論(拔萃本)*, 11, 18-29.

(접수 : 2003. 8. 8, 채택 : 2003. 11. 26)